

열린 마당

음주문화

사설

술 권하는 문화, 심각한 반성 절실

술을 마시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계율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유방대경(六方禮經)」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을 소비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잘 다투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분노가 폭발하고, 지혜가 날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고 취하여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정신을 맑게 가지고 지혜롭게 살려는 삶을 망치는 것이 술의 매력이다. 불교 계율의 다섯번째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며, 보살의 몇 가지 중요한 계에는 "술을 팔지 말라"고 하였다. 술을 팔아서 남의 마음에 지혜의 종자를 어떻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방경(摩訶薩)」의 보살들이 지켜야 할 48가지 가벼운 계(戒)에서 두번

재의 술 마시지 말라. 술 때문에 생기는 과오가 헤아릴 수 없다. 술잔을 남에게 권하기만 하여도 오백생이나 자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다는 데 어찌 볼소 마실 것인가. 보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라고 한다.

요즘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발길 닿는 곳마다 술 권하는 문화와 만나고 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우리의 술 문화를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영웅은 술을 좋아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을 술을 사랑하는 한국의 남성들이 술취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호기롭게 떠드는 말이다. 이러한 숙언 말고도 술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

들이 애주가들의 좋은 안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이켜 보면 남성들의 호기를 자극하는 술과 관련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사회가 알콜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한 너무 관대하다. 연명의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다. 곳곳에 술을 파는 상점이 술집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음주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 보다는 청소년층이나 여성층이 술 재소비자들의 광고 대상이다. 그들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선택 멘탈리즘을 자극하여 술을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알콜중독자는 2백 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알콜중독자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수 없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알콜에 중독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교정되는 것은 20%가 안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음주문화가 율리우스 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장래에 적신호가 오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근래 음주문화나 음주로 인한 폭행, 절도, 강간 등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음주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증명되어 한두는 보고는 충격적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음주는 남성들의 호기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파괴하는 알콜중독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시론

적당하면 藥 지나치면 毒

나는 1942년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의 폐단이 외국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954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백류정신병원에 가서 놀란 것은 한국에서 정신과 의사 12년 동안 한번도 보지 못한 볼을 뿜고 헛것을 보거나 듣거나 몸에 별레가 기어다니는 것 등 작은 동물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환각을 일으키는 진정성염(미국사람은 디(D) 티(T))라고 하는 알콜중독성 정신병을 포함한 알콜중독 환자가 저녁마다 80명이나 입원하는 것이다.

일제 때는 한국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알콜성 만성환자 한 사람을 봤을 뿐 "디티(D.T.)"는 미국에 가서 처음 보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라 일본의 정신병과 교과서에는 일본환자의 사진이 실려있었다.

4년반만에 돌아와서 고려시대 전신인 수도 의대에 와서 근무해보니 한국에도 알콜중독 알콜정신병 "디티"가 붙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국립 서울정신병원에서도 알콜중독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찰하는 부서가 있고 미국식 조사방법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콜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한국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 한다.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정 중독자가 많다는 조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최대로 조사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러시아나 유럽 등 유럽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마약중독환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알콜중독이다.

약이다. 법주라는 것도 있다. 지금 시판되는 법주는 경주 최씨집안의 법주가 아니다. 진짜 법주는 심하게 취하지 않는다. 특히 좋은 막걸리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어 약이다.

망년회는 일제 잔재

내 자신 어릴 때 차를 타면 행복하다고 삼촌이 주는 약주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런 약주는 왜 만들지 못하나 늘 의문이다. 스무살 전후에는 술을 많이 마셨으나 30대에 미국에 가서는 술 담배를 끊었다. 술은 어쩌다가 맥주를 한두잔 마실 정도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회의를 끝마치고 술 마시러 가지고 해도 같이 가지않았나 내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 같아서 조금씩 마시게 되었다. 잘 마시던 사람이 마시지 않으니가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술을 안 먹고 손님을 집에 초대하며 술을 대접하며 옆에서 보니 술에 없는 소리만 지껄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먹지 않으면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음주는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물론 체질적으로나 건강



이동식 (연세대 신경과 외래교수)

강상 마시면 볼에 해로운 사람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셔도 긴장이 심한 사람은 술에 잘 취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술이 저절로 조절이 된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문제가 노출된다. 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압된 적개심이 풀려나서 흥분하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다.

때로는 폭행으로까지 가게 된다. 유쾌해지는 사람이나 잠이 드는 사람은 두산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둑을 맞을 위험도 많다. 술은 1950년대에 인도의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던 식물에서 추출한 알콜성 안정제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까지 정신안정제 주입을 해왔다. 그러나 적당하게 사용하면 마음의 시름을 달래주지만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킨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술이 조절되니 한 말이 많고 해일이 잘 안되는 사람은 조절이 안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잠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주기가 가시면서 도리어 잠이 일찍이 깬다. 문제가 없으면 술이 깨어도 일을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술이 깨어도 술 때문에 지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세상이 가까워지면 일제시대 잔재의 하나인 "망년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라 술마시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고 대화와 노래로 건강을 도모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강에 나쁜 독한 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주문화의 서양화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각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문화일반과 음주문화의 서양화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원래 약주나 막걸리를 마시며 술도 친구와 음식에 곁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친구나 음식없이 술만 마시는 사람은 드문 알콜중독자였다.

알콜중독은 술을 체질적으로 안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술에 매달리기 때문에 생긴다. 술을 마셔도 안주를 잘 먹고 알콜을 몸 안에서 태우는 데 필요한 비타민 특히 치아민을 충분히 공급하면 뇌손상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정신장애는 잘 오지 않는다. 물론 간이나 위장에도 해독을 끼치나 그것은 이차적이다.

우리는 이태백같은 사람을 주산(酒山)이라 하는 데 그는 아마도 요새같은 알콜중독자라고 할 지 모르겠다. 주도(酒道)라는 말도 있다. 우리의 술은 약주(藥酒)라고 해서 본래

나는 이렇게 본다

중독자 2백만... 확산 막아야

◇이제열 (유마선원상임법사) = 요즈음 들어 부쩍 난무하는 술 광고와 함께 술 소비량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맥주와 소주회사 등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제품개발과 함께 각종 판촉 작전으로 음주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술 회사들의 노력은 팔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우리 나라의 알콜을 중독자 수는 이미 2백만을 넘어섰고 있다. 과거의 흥타령이 깃든 노인들의 정취 어린 모습 대신에 반겨리에는 술에 만취되어 뒤엎겨 쓰러진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이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러린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함오 격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생의 온갖 병을 치료하는 것이 불법일진대 불자불녀이라도 불음주를 실천하고 술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따르면 알콜을 함량이 15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 반영시간도 밤 10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술을 의연하며 살

입니다. 저희도 집에서 아버지가 참석 한 가운데 연발을 갖고 싶거든요.

질병·사고의 큰 원인

◇김경빈 (신경정신과 의사) = 남

지라면 무조건 술을 잘마셔야 된다는 민간속설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음주문화를 일반화 시켰다.

우리나라는 심할 정도로 술을 권하고, 마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술의 문화 속에서 술을 기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연말에는 폭음으로 인한 위장출혈, 급성간염, 위염,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음주문화의 계도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제열법사



◇니현준씨



◇조은환양



◇김경빈씨

잠깨우는 아씨는 알미워

◇조은화 (청신국교 6년) = 가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저희도 짜증이 납니다. 술 냄새도 그렇거니와 늦은 밤에 잠자는 동생과 저를 깨워 이야기를 하는 등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2월달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술 마시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업상 친구분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왜 사업을 하는 데 술을 마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해를 보내면서 1년에 한번 친구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아저씨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소중한 가족

적당히 마시는 태도 절실

◇니현준 (방송위원회광고부) = 언제부터인가 연말이면 망년회가 떠오르고 망년회는 술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었다. 정국이 술마시는 시선에 접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진은 유난히 술에 대한 광고도 활기를 띠었던 한해였다. 맥주 3사가 광고를 통해 경쟁을 하다가 술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방송을 통한 광고가 음주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

현대만평 박구원

정신없네

원칙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덕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수학 VIDEO 종합 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니다.

내신성적, 수능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NGLISH 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돌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중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

기존 중학교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교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9(역삼하이츠 1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이 용 갑 본부장